

철강업계, 시황악화에도 R&D 확대 친환경 생산 등 '위기 속 기회' 모색

고부가 제품 개발 등 경쟁력 집중

**포스코 3년 연속 R&D 규모 확대
현대제철 '프리멜팅 전기로' 투자**

철강업계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감 확산에도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해 미래동력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가 건설업계의 시황 악화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저렴한 가격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은 철강업계의 전방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해 업계는 건설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신규 건설 수요가 줄면서 건축구조물 제품의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제철 봉형강 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8조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10조2823억원)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7.4%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품들이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R&D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용이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 2021년 475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789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6000억원을 넘어섰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늘었다. 지난 2021년 0.62%에서 지난 2022년 0.6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0.79%까지 올랐다.

현대제철도 최근 3년간 R&D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R&D 비용으로만 254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1년 2053억원에서 지난 2022년 2456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대비 R&D 비중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0.9%에서 지난해 1.0%로 올라섰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생산 체제 강화에도 매진한다. 특히 업계는 전기로에 투자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완성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6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프리멜팅 전기로' 투자를 진행한다. 프리멜팅 전기로는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저탄소화 된 쇳물을 고로 전공 공정에 혼합 투입해 저탄소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동국제강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전기로 '에코아크'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력효율을 한 단계 높은 '하이퍼 전기로' 공정연구를 2028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어려움에도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칠레 산티아고에서 9~14일(현지시간) 열린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FIDAE 2024'에 참가한 현대위아 전시장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칠레 등 중남미 방산시장 공략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참가
첨단 차량형 무기체계 소개

현대위아가 중남미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수출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위아는 오는 14일까지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FIDAE 2024'에서 신형 박격포 등 첨단 차량형 무기체계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기동형 화포'를 전시용 모형 형태로 선보이며 이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 가운데 105mm 자주포는 경량화를 통해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대

표적 무기체계로 꼽힌다. 이 무기는 기존 자주포 대비 사거리를 늘리고 무게를 줄여 기동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칠레에 화포 체계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05mm 견인포를 칠레에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신규 사업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남미 지역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FIDAE에서 처음으로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한국과 칠레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만큼 칠레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EVS37' 참가

'모비온' 국내 첫 선... 크랩주행·제로턴 시연

전동화 신기술·신제품 전시공간 마련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시 건 발표 예정

현대모비스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전시회(EVS37)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동화 신기술 및 신제품 중심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다수의 연구원들이 학술대회 발표에 나선다.

1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EVS37은 세계 전기자동차협회(WEVA)와 아시아태평양전기자동차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행사다.

현대모비스 연구진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시 건을



현대모비스가 EVS37에서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차 '모비온'.

발표한다. EVS37 참가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핵심인 구동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안전부품, 시스템 플랫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또 업계 최우선 과제인 전기차 모터

최적 냉각 설계, 저마찰 도로에서의 차량 제어, 차량용 컴퓨터 분리 및 방열 구조,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활용 인포테인먼트 시뮬레이션, 전기차 후륜조향장치(RWS)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전시공간에서는 화제의 실증차 '모비온(MOBION)'이 국내에 처음 공개된다. 모비온은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콘셉트카다. 올해 초 세계 최대 규모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CES 2024 현장에서 전시 첫 날 약 1만명의 구름 관중을 끌어 모았다. EVS37 현장을 찾은 관객에게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 등을 시연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아이오닉6, 獨 자동차매체 전기세단 평가 '1위'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파워트레인 항목 최고점 획득

현대자동차의 중형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6가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실시한 비교 평가에서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가 독일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가 최근 진행한 중형 전기 세단 비교 평가에서 스웨덴 폴스타와 중국 니오의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 아우토 자이퉁과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꼽힌다.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6, 폴스타 2, ET5 등 유럽 중형 전기 세단 시장에서 경쟁 중인 3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바디 ▲안전성 ▲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비용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아이오닉6는 바디와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등 5가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총점 582점으로 폴스타2(576점)와 ET5(519점)를 제쳤다. 특히 아이오닉6는 항속거리와 전비,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04점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 픽업트럭 시장 도전... 차명 '타스만'

다재다능 '라이프스타일 픽업' 강조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inspiration)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에서 유래기아가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기아는 11일 브랜드 첫 픽업의 차명 '타스만(이하 타스만)'을 공개했다. 타스만은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inspiration)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룬 타스마니아 섬은 멋진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어우러지며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경관을 자아낸다.

기아는 차명 타스만에 대담한 개척



기아 픽업트럭 차명 타스만.

정신과 때문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일과 삶 어디서든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재다능한 '라이프스타일 픽업'을 강조했다.

기아는 중형 픽업 타스만을 2025년부터 국내와 호주, 아프리카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지엠 쉐보레, '온스타' 국내 서비스

트랙스 크로스오버 적용... 2년 무상

한국지엠 쉐보레가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적용, 국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는 2년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고객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시작한 온스타 서비스를 쉐보레, 캐딜락, GMC 등 향후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GM의 신차 고객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온스타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 중 국내 고객들이 선호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도입, 업계 최고 수준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560만 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GM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다. 온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의 원격 제어부터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보다 확장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지엠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윤명옥 전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GM이 주도해 온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결정체"라면서 "고객에게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